

빌립보서 1장

1.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무슨 글인가?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감독, 집사)에게 쓴 편지: 다음과 같은 답이 더 좋은 답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쓴 편지.' 1차적으로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이다. 성경전체가 그러하다.

2. 우리나라의 편지 서두는 주로 날씨나 안부를 묻는다. 바울의 편지 서두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 인사란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나?'가 인사이고, 위험한 시절을 많이 겪은 민족은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항상 좋은 나라에서는 'Good morning'이라고 인사한다.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최근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도 등장했다. 일회성이려면 몰라도 이것이 좋은 인사로 자리 잡는다면 아무리 우리 사회가 물질만능, 황금만능의 시대라고는 해도 도가 지나치다.

(3-11)

3.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을 전부 찾아서 두 개의 동사로 요약해 보자.

생각, 감사, 간구, 기쁨,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함, 확신, 사모,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감사하다, 보고 싶다(감사와 간구): 그렇게 기쁜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잘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느 누가 줄 수도 없는 기쁨이다.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기쁨도 적지 않다. 좋아하는 것을 수집하는 재미도 괜찮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며 뼈기며 사는 것도 큰 기쁨이다.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는 것(5)이 더 없는 기쁨이었다.

4.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란 누구인가(6)? '착한 일'이란?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이다(행 16).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로 인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것을 잘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 하려고도 결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전 9:16).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6, 10): 비록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영광과 육이 새롭게 완성될 것이다.

5.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확증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7). 어떻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함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갇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임에 참여했다는 말인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 더 힘껏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믿을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학생이 선생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이 사도임을 자주 언급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다.

6. 이순신 장군이 남겼다는 시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굶나니...'란 구절이 있다. '애를 굶는다'는 것은 지독한 아픔을 뜻한다. '애'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본문에서 찾고 바울은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심장(8): 원래 이 단어는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이다(행 1:18절의 창자와 동일함). '간절한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성도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주신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다.

7. 바울의 기도(9-11) 속에는 구구절절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묻어난다.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무엇인가?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기를 기도했다.

진실하고: 세상이 악해서 도저히 진실하게는 살 수 없다고? 당시에는 진실의 문제가 주로 생사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소유의 문제이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좀 더 분명한 선을 긋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맺는 의의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11). 이것은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이었다.

절 구분은 약간 애매하여 오히려 독해에 장애를 주고 있다(10절). ‘또 진실하여...’ 앞에서 절이 구분되어야 한다.

8. 귀여운 아들이 먹고 싶다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더니 틀어질 수 없는 비만아가 되었다. 그 엄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랑(9):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지 않는 아픔도 감내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주원인은 ‘지혜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12-30)

9. 나의 당한 일이란(12)?

감옥에 갇힌 일: 3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공정치 못한 재판과 이유 없는 오랜 구금에 항의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함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마에 가고 싶어 하던 바울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억울하게 갇혔다’고 분함을 억지로 참고 견디는 수도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감사할 수도 있다.

10.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지금은 죄수의 몸이 된지 오래되었다.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흩어지는 일: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를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적이 있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은 그 한 사람이 사라질 때 한꺼번에 사라질 위험이 있다. 후계자나 동역자 없이 혼자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11. 자신의 갇힘으로 예상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 1) 자신이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소에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까지(시위대 안) 전할 수 있게 (진보) 되었다.
- 2)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예수만 전해진다면 기뻐한다.
- 3) 자신의 죽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 4)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은혜임을 아는 것이다.

12. 바울의 전도 대상은 대체로 일반인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전도 대상이 바뀌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라면?

시위대 안의 사람들(기타 모든 사람들)

13. 바울이 갇히게 되자 두 종류의 전도자가 생겼다.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한 전도자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 반면에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괴로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요즈음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을까?

영역 싸움: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기심에서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끌어 모으는 일, 현대식으로 말하면 교회간의 성도 쟁탈전이나 선거를 앞두고 표를 모으는 일 따위 일 것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4. 순전치 못한 이유로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바울에게는 전혀 약발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바울에게는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는 이기심이 전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기 때문이다.

15. 순전치 못한 동기로 복음이 전하여져도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기뻐하리라. 그러면 상을 타기 위한 전도나, 교회간의 경쟁, 명예심에서 나온 열심,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섬기는 일 들을 권장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한 것이지 바울 자신은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16. 19절의 ‘이것’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뜻한다. 19절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뜻할까?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할까? 양쪽을 다 의미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감옥에서 쓰는 편지이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소망도 있으므로(25-26절).

영적인 구원: 감옥에 갇혀 있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할 뿐 아니라 뒤이어 죽고 사는 문제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23).

아무래도 바울 자신이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기독교의 구원이 영, 육간의 구원임을 감안하면 그럴 수 있겠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17.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초조, 긴장, 불안...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간단한 말을 본문에서 찾는다면?

결과 같이 이제도(20절,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만 증거하리라):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담대하여'도 괜찮은 답이긴 하지만...

25-26절을 참고하면 자신의 무죄 석방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요는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18.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는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바울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살아야 하는 이유와 죽어도 좋은 이유를 말해 보자.

죽어도 좋다: 내게는 유익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바라는 바다.

살아도 좋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19. 바울은 이상한 죄수다. 스스로 체포될 것을 알고 체포될 곳으로 갔고,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호송 도중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으며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구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했다. 본문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말이 되어도 바울의 말하기에 동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20).

(죽음과 삶 중에) 무엇을 가릴는지 알지 못하노라(22).

죽는 것도 유익이라(21).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삶을 살자.

20.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미국에 건너가서 가난하고 못생기고 멍청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왜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니,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여자와 누가 결혼을 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들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15-24)과 이 문학가 중에 누가 더 심한가? 왜?

바울:

1) **필생의 임무를 빼앗겨도 좋다:**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헌신하던 그 일이다. 그것마저도 놓을 수 있다.

2) **그 분을 위해서라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살짝 돈(?)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는 것도 종목을 잘 골라서 제대로 놀아야 한다.

21. 바울에게 있는 갈등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갈등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극히 싫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갈등은 심각하겠지만 바울은 둘 다 좋아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이런 갈등도 갈등이라고 해야 하나?

22.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복음을 변명(변증)하는 삶(7, 16)이라고 말한다. 빌립보 성도에게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앞에서 바라는 바를 말한 적이 있었지만(9-11), 이제 또 여러 말로 권면을 하는데(27-29)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얼까?

복음에 합당한 삶(27):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일심으로 협력하라', '대적자를 두려워 말라', '고난도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23. 싸우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승리의 징조가 보인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패배의 징조가 된다.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빙거)가 되는 것이라면 박해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이런 말을 잘 이해했을 것이다.

24.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아픔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워 남을 속이기도 하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고통도 배운다. 양을 치던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기존의 모든 것을 버렸다.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29).

25.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면서 '내 안에서 본 바'라는 것을 요즈음 식으로 하면 '내 간증을 들고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워졌다는 것을 성도들은 다 잘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또 내 안에서 들은 바'라는 것은 현재 옥에 갇혔지만 이것 역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이다.

빌립보서 2장

<1-11>

1. 다음 인용문에서 틀린 곳이 있으면 고치시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1-4)

낮게 낮게

2. 우리가 흔히 하는 권면이나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경우에 잘못이 있다면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가?

부자가 거지를 팔보고 동정하듯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권면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겸손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없이 권면하는 것은 잘못이다.

3.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표현하고 있다(10).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다를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온 세상 사람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만 가리킨다.

4.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표현들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십자가에 죽으심'

주인이면서 종의 형체를 지녔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로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이 개미나 지렁이가 된 것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5. 우리가 높아지려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막 10:43-44). 예수님처럼 높아지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 옳은 말인 듯싶은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비판적으로 지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게 아니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 자신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일.

6.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에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싸우지 말자'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으면 초라해 보인다. 부자가 허름한 옷을 입으면 겸손해 보인다. 겸손하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면 무슨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가?

실제로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한다. 약한 자가 강자 앞에서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실력을 쌓아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먼저 강한 자가 되라. 겸손은 그 후의 일이다. 강한 자가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겸손할 수 없다.

고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노예근성에서 나온 굴욕과 비굴함을 뜻하였다고 한다. 예수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교훈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다.

7. 총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원에 선출되었는데 '나보다는 XX가 더 낫다'면서 한사코 임무를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다? 아니다? 왜?

아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 줄 때 쓰는 말이다. 즉 남보다 더 큰 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다른가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8. 겸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다(2점). 그래야 나중에 높아지기 때문이다(1점).

9. 겸손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것이다.

10. 가정의 일이나 직장에는 충실하지 않지만 교회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바울은 이런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자기 일도 돌아보라(4): 남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사람은 자기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 일에 헌신적인 사람도 자신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복음을 위한 열정이 지나쳐서 일찍 귀감을 잃어버린 사람도 적지 않다. 열심히 있는 신앙이고 해도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 아닐까?

<12-18>

11.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미 구원을 얻었음이 틀림없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의도가 명확하도록 다르게 표현해보자.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고) 얻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성화되어

가야 하고 교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12.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롬 8:15)런 바울이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은 무슨 아닌가?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이런 양면이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친근한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공경의 대상도 되는 분이시다. 그런 만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다.

13.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13)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면 굳이 우리가 신경 쓰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선교, 구제, 교육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인데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나설 것이 무엇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본문의 어느 구절을 무시하고 있는 셈인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13)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제쳐두고 단독으로 하시는 일은 없다.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神人協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찾아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지는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

15.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이 표어는 20여년 전에 대구의 어느 육교에 붙어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성실한 사람이 잘 못사는 사회로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이 표어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떼어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1) 이런 시대를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15)

2) 흠 없고 순전함으로(15)

16.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긴다. 어떻게 이런 일을 극복할 것인가?

믿는 형제가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관제로 드린다. 그래서 그의 명예가 드러나고 공을 세우는 반면, 나는 관제처럼 모양도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야 한다.

17.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14).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구절이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어둔 세상의 빛이 된다(15, 마 5:14) 뒤이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성도가 서로 원망도 시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때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성도가 온 세상의 비난을 받는 현실과 비교해 보라.

18.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것이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기적이 아닌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나도 동네에 자랑 좀 해 보자. 이번에 수석 한번 해 봐라" 이근 이기적인가? 핵심은 잘 하라는 데에 있다. 자기 자신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각오이다.

19.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봉사의 삶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느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뜻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17) 그러나 '드릴지라도'라는 말에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관제(灌祭)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

20. 빌립보서 2:1-18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자.

믿는 형제들에게: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흠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라.

21. 빌 2:17-18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한다면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자.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제물이 되라. 한국 교회에는 제물이 없다. 링컨의 죽음이 미합중국 통합의 제물이 되었다. 부흥에는 제물이 있었다.'

1) 이 본문은 '너'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 있다.

2)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나의 노력, 나의 그 무엇이든 진정한 제물이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돌아보라는 당부이지 무엇을 바치라는 뜻은 아니다.

- 3) 본문에는 제물이 있음은 전제하고 이 설교는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 4) 무조건 드러라 할 것이 아니라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9-30>

22.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끔찍하게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라니(23)? 빌립보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데 개인의 신상 문제 때문에 디모데의 파송을 늦출 수 있는가?

바울의 일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재판은 곧 받게 될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바울의 재판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온 교회의 관심사항이며 중요한 일이다. 바울의 개인적인 일이 곧 교회의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기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다.

23.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될 만한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몰라서,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변함, 에바브로디도의 병든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많지 않음

24. 바울의 생각에는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는 디모데보다는 에바브로디도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병든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걱정을 덜려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26)과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서(28).

25.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나가도록 초석을 다진 위대한 바울이라고 칭송을 하지만 바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고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삶은 아니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한가?

외롭다(20).

26.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성도였음을 말하는 구절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병이 들었을 때에 염려한 것은 무엇인가?

너희 사자(25),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30)

자신으로 알미않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26): 곧 죽을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염려할 정도면 훌륭하다.

27.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에 대하여,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 보자.

1) **바울의 근심:** 고향 떠나서 복음을 위해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남은 일도 태산인데... 선교사가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때의 황당함을 생각해 보라.

2)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할까?: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근심할까 염려하는 근심이다.

3)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 바울 선생님도 옥에 갇혔는데 에바브로디도마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28. 바울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일을 자주 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일이 있다.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다. 어떤 점이 비슷한가?

병이 낫자마자 일도 많이 밀려 있을 텐데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낸 점.

29.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는 휴강을 잘하는 교수란 말이 있다. 휴강이란 것이 없는 중, 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마도 시간 중에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잘하는 선생님이 아닐까? 본업인 수업만 안 하면 좋아하는 이상한 현실이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하는 법이다. 믿는 우리는 누구를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실은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30.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을까?

자기 목숨보다 더 바울을 소중하게 여김(30):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니, 목숨은 너무 거창하다. 어떤 분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드러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한 것도 같은 경우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빌립보서 3장

1. 바울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살전 2:19, 3:13, 4:15, 고전 15:23). 본문에 그런 예가 있는가?

없다: 1절의 '종말로란 말은 종말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다(엡 6:10, 빌 4:8)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서신서의 결론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 예가 드물고(고후 13:11) 오히려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살전 4:1, 살 3:1). 본문에서도 '끝으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종말론과 관련이 굳이 있다면 20-21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앞장에서 온화하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울이 여기서는 자세가 돌변하여 말이 좀 거칠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가?

거짓 교사들: 손할례당, 행악하는 자, 개라고 표현한 것은 끈질기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3.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 짜증나는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왜 수고로움이 없는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너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전혀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진짜 필요한 말이라면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도 수고롭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같은 말이란 바로 뒤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일 것이다.

4.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롬 2:29)인데 손으로 행한 육체의 할례(엡 2:11)를 중시하다가 영적인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자를 손할례당이라고 한다.' 이 설명은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 어디일까?

손할례당의 손이란 hand가 아니라 손해 볼 損이다: 損할례당은 개와 행악하는 자와 동류이다. 단순한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5. 바울이 창당한 당의 이름은 '할례당'이다. 어떤 사람만 가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6. 3절의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가리킨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로 번역하였다. 할례당은 손할례당과 비교하여 예배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손할례당은 예배를 전통과 형식에 따라 드렸다. 그러나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 4:24). 2절과 3절은 역을 이루고 있다. 3절을 부정하면 2절이 된다. '거짓 교사들은 예배와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봉사하며,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한다.'

7.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불러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만 잡히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잘못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6):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다. 그런 열심을 지닌 그가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의 일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 하지 않는 자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8.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5-6)?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도 할 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자랑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먹혀드는 자랑거리다.

9. 바울의 자랑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어 보자.

8일 만에 할례: 모태신앙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의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조상대대로 믿는 집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성경박사

열심으로는 교회를 핏박: 우상이나 사이비 종파들의 집회에 목숨 걸고 반대 시위함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10. 다음과 같이 자랑하는 사람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내가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5-6)

육체를 신뢰하는 자(3):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무익한 자랑이다. 바울이 자신도 자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11. 바울의 자랑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전혀 해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데 해로운 것이다. 마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운 짓이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거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는 훌륭한 것이었다.

12.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느 날 부와 명성을 버리고 목회자로 변신하였다면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자랑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딱 한 가지 경우에는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을 것이다. 어느 때인가?

출세하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았을 때: 바울의 경우에는 자신들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13.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8)과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라는 말(9)은, 내용은 둘 다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같고 강조점이 약간 다르다. 전자는 그리스도,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 후자는 어떤 점에 강조점이 있는 걸까?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열차가 되고 나는 단지 그 속에 머물러(연합되어) 있다가 구원이라는 종착역에서 발견되면 구원에 이른 것이다. 바로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말씀은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는 말이다.

14.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자마자 즉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행 9:22). 바울이 가진 지식이 그렇게 힘을 발휘한 것이다.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도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란 사실도 복음 전파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했음에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말은 틀린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전에는 버릴 수 없는 절대적 가치(구원의 조건)였지만 이제는 상대적 가치(사역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말이다: 우리도 명예, 부,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이것들을 추구하는 점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버려야 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인생이 연극이라면, 막을 내려놓고는 웃고 떠들망정 막을 내리기 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15. 여러분들은 다음 중 어느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하나만 고르시오.

<명문 집안의 맏이, 최고 갑부의 아들, 대학 수석합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만 고르라면 너무 잔인한가?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골랐을 것이다. 아마 다 거쳐본 것이기에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은 믿고 따라도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16.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8):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흔하지만 앞에 '내'라는 말을 붙임으로 특별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분위기가 짜악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감점대상이다.

17.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의'라고 말한다. 내가 믿어서 얻은 의라면 나의 의가 아닌가?

믿기는 내가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믿음은 결코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믿는다고 고백한 말 한 마디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엄청난다. 독생자를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 보내서 온갖 고난을 다 겪게 하심으로 이런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마지막 한 마디 '믿는다'고 고백만 하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다면 너무나 철없는 짓이다.

18. 율법에서 난 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무슨 뜻인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행함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다. 일하지 않고 샅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롬 4:4-6).

19. 얼마나 본받을 것이 없으면 죽음을 본받으려 하는가?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11): 그 부활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21).

20. 바울은 온전히 이른 자(15)인가? 아니면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12)인가?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8, 10).

21. 바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지금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쫓아다니는 모습이다. 예전에도 그랬다. 예전에는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는가?

그리스도인들(행 9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는 말씀에서 핍박하다는 말과 본문의 쫓아간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동일한 말(디오코)이다. 예수를 핍박하느라고 그를 쫓아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쫓아다닌다는 표현이 너무 재미있다.

22.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이구 머리아! 잡혔으면 잡혔고 잡으면 잡는 것이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정리해 보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잡혔다. 잡히고 보니깐 더 잡히고 싶더라는 말 아닐까? 이제는 확실하게 잡히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구원의 8단계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

바울이 잡힌 것은 중생이요 칭의다. 쫓아가는 것은 성화를 가리킨다.

23. '오직 한 일'이란 '한 가지 일'이란 뜻인가 아니면 '내가 행한 일'이란 뜻인가?

한 가지 일: 문맥상으로는 행한 일로 풀이할 개연성은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결코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뜻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이다. '오직 한 일'이 어느 단어의 목적어일까? '잊어버리고?' 아니면 14절의 '위하여?' 후자다.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24. 달리기 선수가 얼마만큼 뛰어왔는지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초보 운전자가 차의 바로 앞 도로를 자세히 보고 운전하면 제대로 가지 못한다. 멀리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랜턴도 발을 딛는 곳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 앞쪽을 비추어야 한다. 뜻대만 보고 달려가야 한다. 바울이 말하는 뜻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자. 심지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생각하지 말자.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25.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8)을 달리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10):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분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한 그 분이 현재 살아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그 분을 섬기므로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이다. 그의 죽으심마저 본받음으로 이런 것을 체험하고 알아가려고 한다는 고백이다.

26.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7-14).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것, 위에서 부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다. 영광스런 그 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노라!

27.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1-3)고 한 후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변호했다(4-6). 뒤이은 부분(7-14)도 거짓 교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음 부분(15-19)을 말하기 위한 전제라고 한다면 주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 물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말일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가 일신상의 모든 유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주자처럼 뜻대를 향하여 달리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28.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15) 의견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대열을 흐트리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할 뿐이다. '그대로 행한다'는 말은 '군대가 보조를 맞추어 행진한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보조를 맞추어 그대로 나아가자는 말이다.

29. '유행가를 좋아하지 마라. 담배는 해로우니까 피우지 마라. 술도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니 먹지 마라. 연예인을 왜 좋아하느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피곤한 일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도 없다. 좋은 방법을 바울의 고백에서 배운다면 어떤 것일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좋은 일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하려고 하는 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알게 한다. 가장 고상한 것을 알게 한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시

시하게 보인다. 일찍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이나 하나님의 멋짐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30. 이 구절을 처음 보았을 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다 하는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훌륭한 선생님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은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조금 더 들여다 볼 눈이 생김에 따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고 여겨진다. 이 구절은 어느 구절일까?

나를 본받으라(17):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자.

31. 17절의 '보이라'는 아무래도 말이 좀 어색하다. 다른 역본이나 영어 성경을 참고해서 분명한 의미를 찾아보자.

주목하여 자세히 보라는 말이다, **눈여겨 보십시오(표준새번역)**, **지켜 보십시오(현대인의 성경)**, **mark(KJV, RSV), note(NKJV), take note of(NIV), observe(NASB)**: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자가 우상이다. 과거처럼 민족이나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다. 믿는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을 주의해서 살피고 있는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름 없는 민초일지라도 그 속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살아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야 한다.

32. 담배를 즐기다가 폐를 절제한 사람의 한 맺힌 절규는 '담배를 끊으라'는 것이다. 요즈음 이주일 씨가 그런 셈이다. 그래도 그런 권고를 가볍게 여기고 담배를 즐기는 사람을 보는 이주일 씨의 마음은 어떨까?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욱 처절하게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33.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1) 말로(末路)는? 2)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는가? 3)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은?

1) 멸망, 2) 배, 3) 부끄러움: 저 하늘에 얼마나 소중한 귀한 것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땅만 뒤적이며 사는 인생이다. 모르니까 그나마 잠깐의 행복이라도 누리는 셈인가!

34. 어떤 선교사님이 고국에 1년 정도 쉬러 와서 지내시는 중에 온갖 가전제품은 남이 버리는 것을 얻어다 쓰거나 헐값에 구한 고물만 구해 놓아서 남이 보면 거지같아 보여도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셨다. 1)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2)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생을 살았으나 전혀 불만이 없는 것도 같은 이유였으리라고 믿어진다. 바울의 어떤 말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가?

1) 잠시 쉬었다가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어차피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 진짜 내 집은 선교지에 있으니까.

2)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막강한 것이었다. 심지어 유대의 천부장조차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에도 십자가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천국의 시민권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35.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된 영광스런 몸은 어떤 모습인지 말해보라. (참고, 고전 15:51-53, 록 24:36-43)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몸은 분명히 있으나 썩지 않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신 이유는 며칠 굶었기 때문이 아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이 있음을 확인시키려고 하신 일이다.

빌립보서 4장

1. 바울에게는 그리운 가족이 따로 없었다.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이었다. 자랑할 만한 것들도 다 버린 지 오래다. 자랑할 게 있다면 성도들뿐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라고 말한다. 성도들이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모했다.

기쁨, 면류관: 성도들의 참된 기쁨, 특히 사역자의 참된 기쁨은 성도 그 자체여야 한다. 그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의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요 면류관이여야 한다. 성도가 가진 재능이나 내게 돌아올 유익을 따져서 개개의 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다. 성도들도 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2. 1절을 고쳐 쓰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를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니

이와 같이: 내가 말하는 대로?

3.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말로 권면하고 있으나 권면의 바탕은 한 가지다. 당면한 많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을 바울은 어디에서 찾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 "집사가, 장로가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내가 해준 게 얼마데 그럴 수 있느냐?"는 식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오직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하나님 때문에 용감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싸워야 한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4.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두 사람이 있었다. 말썽을 부려서 말썽이 아니라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유능한 일꾼이었지만 너무 개성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누구며 해결책은?

순두계와 유오디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5. 말이 쉽지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나? 도무지 답이 생각나지 않으면 2장을 다시 보라.

같은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뜻한다: 주인이면서 종의 형체를 지녔고, 하나님 이면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다.

6. 3절의 '네게'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누군지 알 수 없으니 빼고 읽으면 되는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7.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던 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가장 소중함을 받을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기뻐할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 땅에서는 그리 유명하거나 이름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8.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4:4-7).

자신에 대하여 () 삶, 이웃에 대하여 () 삶, 하나님에 대하여 () 삶.
항상 기뻐하는, 관용하는, 감사하는(기도하는)

9.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슬플 때도 억지로 기뻐해야 하나?

그렇다: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더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

10. 성질 고약한 사람이나 자신만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기가 쉽지 않다.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주께서 가마우시니라(5)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관용을 베풀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주님을 상대하라.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라. 그래야 손해를 보거나 역경을 만나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관용이다.

11.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러면 좋을 텐데?

바울의 대답이 더 뛰어난 답이다: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도 마음의 평강을 찾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어리석은 요구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마음의 평강을 되레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의 평강이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12. 우리는 독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

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13.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엇에든지...' (8)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바울도 좋은 일만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다를 바가 없네?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근거를 지금까지 설명해 왔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근거가 다르다.

14. 8절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야 할 내용 6가지와 생각하는 수단 2개(떡을 세우는가? 기릴만한가?)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참되고, 경건해야 하고... 그런 중에서 이것이 떡을 세우는 일인지, 기쁨을 받을만한 일인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끝의 '이것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해야 할 내용 6가지: 여러 역본들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설명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초대 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였다. 그들에게서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머리만 굽어져서...'라는 말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9절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들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하라: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목회자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

16. 빌립보 성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모로 도왔다(15-16절).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의 도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짝이 남(10): 성도들의 도움에 대해서 바울은 정중하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잠시 후 원이 끊어졌을지라도 그들의 마음마저 식은 것이 아니었음을 잘 안다고 말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한다.

17. 16절을 근거로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재정 후원): 13절은 바로 이 구절의 반복이다.

18. 소위 'Can Do 정신'이라던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면 뭔가 되기는 된다.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부작용도 심각하다. 상황판단이나 이성적인 노력을 무시하는 방편으로 이 말씨가 사용되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13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씨는 어느 부분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 능력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재정후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후원을 해줘서 고맙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던 것이었는데 후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비교하면 어떨까?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서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바울의 신앙고백이기에 빌립보 성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백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19. 자족이란 말은 외적인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연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이 숙명이나 체념을 뜻하는가?

숙명과 체념은 항복이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만족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20.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는 손수 노동을 하였다(살전 2:9, 살후 3:7-8).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경우라면 후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노동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도와야 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바울의 노력과 그런 바울을 도우려는 빌립보 성도들의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1. 빌립보 성도들이 많은 선물을 보냈을지라도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에 대한 열매이다. 무슨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가?

선물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19): 빌립보의 성도들도 역시 부족한 가운데서 이런 후원을 했음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는 헌금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 아니겠는가!

22.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은 바울을 몹시 기쁘게 하였다. 힘든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선물을 누가 받으셨다고 말하는가?

하나님(18c):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말이다. 선물을 받기는 자신이 받고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은 행복하다.

23. 바울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가장 소원했던 곳이 로마였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오면 드디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가이사 집안(22): 특별히 자랑하고 싶어서 가이사 집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음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당시의 가이사는 네로였다. 악명 높은 네로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다.